

# 청년층의 저임금근로 지속성에 대한 고찰

반정호\*

## I. 머리말

경제위기 전후로 우리 사회는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 중간임금근로자의 비중은 현저히 줄어드는 임금수준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중위임금의 2/3에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근로자<sup>1)</sup>의 비중은 1996년 17%대에서 2001년 25%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의 저임금근로자 비중(26%에서 44%)과 고령층의 저임금근로자 비중(29%에서 50%)이 급속하게 늘고 있다. 저임금근로자와 관련하여 매우 특징적인 것은 청년계층의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같은 기간 36%에서 56%로 급속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한겨레신문, 2003년 9월 22일자 보도 참조). 청년층 근로자의 저임금현상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취약계층으로 평가되는 고령자나 여성 뿐만 아니라 청년층 역시 취약계층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최근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청년층 실업률이나 취업자 증가율이 크게 하락하는 현상을 통해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청년층의 저임금근로는 근로자 개인의 생계유지를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취업과 실업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을 높게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청년층 근로자의 저임금현상이 매우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장기화될 때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라고 하겠다. 한 사회의 노동과 생산의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청년층이

\* 한국노동연구원 데이터센터 동향분석팀 연구원(jhban@kli.re.kr).

1) 일반적으로 저임금근로자는 절대적 개념과 상대적 개념의 두 가지 분류기준에 따라 정의된다. 절대적 개념의 분류방식은 최저생계비, 빈곤선(poverty line) 등 특정임금 수준 미만의 근로자를 저임금근로자로 분류하는 방식이며, 상대적 개념의 분류방식은 전체 근로자의 특정 분위별 임금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방식으로서 중위임금(median wage)의 2/3값, 10분위값, 25분위값 등이 주로 사용된다(강승복, 2005).

저임금근로를 지속하게 될 경우, 노동시장을 통해 안정된 생애소득을 획득하지 못하는 청년층 개인은 노동시장의 배제와 빈곤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 우리나라 전체 국가경제와 노동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청년계층의 저임금근로 지속성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만일 이와 같은 현상이 실재한다면, 저임금근로를 지속하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특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보고 이들 계층에 대한 차별화된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함의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중앙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조사」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개년도 자료를 패널로 연결해 활용하였으며, 분석기간 동안 모두 취업상태를 유지한 청년층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sup>2)</sup>

## II. 청년층 저임금근로자 현황과 노동시장 특성

### 1. 청년층 저임금근로자 현황과 추이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을 위해 「청년패널조사」 3개년 모두 취업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청년층(15~29세) 1,038명을 표본으로 설정하였으며, 저임금근로자는 OECD의 정의에 따라 중위임금의 2/3값 미만자를 저임금근로자로 정의하였다. <표 1>은 청년층의 저임금과 관련된 지표와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을 연도별로 보여주고 있다. OECD의 정의에 따른 청년층의 중위임금은 2002년 1,100천원, 2003년 1,300천원으로 나타났으며, 2004년에는 1,400천원으로 임금수준이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청년취업자들 중에서 중위임금의 2/3값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저임금근로자는 전체 표본 1,038명 중에서 10.0%에 해당하는 104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3년에는 138명으로 전체 표본의 13.3%가 저임금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2004년에는 저임금근로자의 수가 159명으로 증가해 전체 표본의 15.3%가 저임금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청년층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은

2) 흔히 저임금근로는 빈번한 실업과 비경활인구로의 이행가능성을 높이는 등의 노동시장에서의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요인으로써 논의의 주제가 되곤 한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청년 실업자나 비경활인구로 이행하는 청년층을 제외하고 취업상태를 유지하는 청년층만을 분석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왜냐하면, 최소 3년 정도 취업상태를 유지한 청년층은 실업이나 비경활인구로 이행한 청년층에 비해 근로능력이나 의지가 높을 뿐만 아니라 안정된 고용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저임금근로를 지속하고 있는 청년층에 그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이다.

〈표 1〉 청년층 저임금 관련 지표

(단위 : 천원/월, 명, %)

	2002	2003	2004
중위임금 <sup>1)</sup>	1,100	1,300(18.2)	1,400(27.3)
중위임금의 2/3값	733	867	933
평균임금	1,235	1,379	1,481
10% 분위수	740	800	850
25% 분위수	900	1,000	1,000
75% 분위수	1,500	1,600	1,800
90% 분위수	2,000	2,000	2,300
저임금근로자	104(10.0)	138(13.3)	159(15.3)
비저임금근로자	934(90.0)	900(86.4)	879(84.7)

주: 1) (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 중앙고용정보원, 『청년패널조사』, 2002, 2003, 2004. 원자료.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청년취업자의 성별로 임금수준을 살펴보면 남성의 2002년 중위임금은 1,215천원으로 여성의 중위임금에 비해 215천원 정도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2003년의 경우, 남성의 중위임금은 1,500천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여성은 1,100천원으로 여전히 남성에 비해 여성취업자의 임금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청년 여성취업자의 저임금현상은 2004년에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청년취업자의 성별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을 살펴보면 2002년의 경우 남성취업자 중에서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5.6%인데 비해, 여성취업자의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15.5%로 청년여성의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임금근로자만을 기준으로 하면, 2002년 남성취업자에 비해 여성취업자의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2003년의 경우 남성취업자 중에서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6.5%로 여성의 21.5%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여주어 여성취업자의 저임금근로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2004년 조사에서

〈표 2〉 청년취업자의 성별 저임금 지표 및 저임금근로자 비중

(단위 : 천원/월, 명, %)

	2002		2003		2004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중위임금	1,215	1,000	1,500	1,100	1,500	1,200
중위임금의 2/3값	810	667	1,000	733	1,000	800
저임금근로자	32(5.6)	72(15.5)	38(6.6)	100(21.5)	37(6.5)	122(26.2)
비저임금근로자	540(94.4)	394(84.5)	534(93.4)	366(78.5)	535(93.5)	344(73.8)

자료: 중앙고용정보원, 『청년패널조사』, 2002, 2003, 2004. 원자료.

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2004년 남성취업자 중에서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6.5%로 2003년과 유사한 수치를 보여주었고, 여성의 경우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은 26.2%로 2003년에 비해 4.7%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청년층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의 저임금근로 현상이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남성의 경우 3개년 모두 그 비중이 5% 후반에서 6% 중반을 넘지 않는데 비해 여성은 2002년 15% 중반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4년에는 26% 초반까지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2. 청년층 저임금근로자의 노동시장 특성

<표 3>은 2004년도 조사에서 나타난 청년층 저임금근로자의 노동시장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청년취업자의 종사상 지위에 따른 특징을 살펴보면 정규직 임금근로자 중에서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은 13.8%로 나타났으며, 비정규직이 23.3%, 비임금근로자의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17.7%로 분석되었다. 즉, 비정규직 근로자의 저임금비중이 비임금근로자에 비해서 5.6%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서는 9.5%포인트 높은 수치이다. 이는 비정규직 청년취업자의 저임금현상을 나타내주는 결과로 이해되며, 낮은 고용의 질이 낮은 임금으로 이어지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양상을 반영하는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청년취업자의 주당 근로시간에 따라서는 40시간 미만의 근로를 하고 있는 청년층의 경우 저임금근로자는 29.5%로 나타나는데, 이는 40시간 이상 근로활동을 하는

<표 3> 청년층 저임금근로자의 노동시장 특성

(단위: 명, %)

		2004	
		저임금	비저임금
종사상 지위	정규	114(13.8)	712(86.2)
	비정규	31(23.3)	102(76.7)
	비임금	14(17.7)	65(82.3)
근로시간	40시간 미만	18(29.5)	43(70.5)
	40시간 이상	141(14.4)	835(85.6)
근무기간	3년 이하	77(16.9)	379(83.1)
	5년 이하	56(16.2)	290(83.0)
	6년 이상	26(11.1)	209(88.9)
기업규모	300인 미만	142(17.0)	694(83.0)
	300인 이상	17( 8.4)	185(91.6)

자료: 중앙고용정보원, 『청년패널조사』, 2004. 원자료.

청년층의 비중(14.4%)에 비해 무려 2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결국 법정근로시간(300인 이상, 주당 40시간) 미만의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층의 일자리는 시간제 근로 등의 비정규직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범주에 속하는 청년취업자의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근무기간을 비교해 보면 3년 이하의 짧은 근무기간을 가지고 있는 청년층의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16.9%, 5년 이하의 근무기간을 가진 청년층은 16.2%, 6년 이상은 11.1%로 근무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기업의 규모별로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을 살펴보면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의 기업에서 근로하는 청년층의 경우,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은 17.0%로 300인 이상의 대규모 취업자 비중(8.4%)에 비해 8.6%포인트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산업별 청년취업자의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을 살펴보면 제조업(20.1%)에 가장 많은 저임금근로자가 분포되어 있으며, 교육서비스업(12.6%)과 도소매업(11.9%)과 보건·사회복지업(11.9%)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상위 3개(제조업, 교육서비스업, 도소매업) 산업의 비중은 44.6%로 청년층 저임금근로 현상이 특정 산업에 집중되어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저임금근로자가 전혀 없는 전기·가스 및 수도업을 제외하고 오락문화사업과 농림어업, 운수업, 통신업 등은 그 비중이 낮은 산업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부표 1 참조).

<표 4>는 2004년도 조사에서 나타나는 주요 산업별 청년취업자의 비중과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산업별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사회서비스업이 30.1%로 가장 높고, 제조업과 유통서비스업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요 산업에서 건설업과 개인서비스

〈표 4〉 산업별 청년층 저임금근로자 분포

(단위: %)

	2004		
	전체 청년취업자(a)	저임금근로자(b)	b/a
전체	100	100	1.00
제조업	24.4	20.5	0.84
건설업	5.5	5.1	0.93
생산자서비스업	19.0	16.7	0.88
유통서비스업	15.8	17.3	1.09
개인서비스업	11.2	10.3	0.92
사회서비스업	24.1	30.1	1.25

- 주: 1) 생산자서비스업(Producer services)=사업서비스업+금융 및 보험업+부동산 및 임대업
- 2) 유통서비스업(Distributive services)=도·소매업+운송업+통신업
- 3) 개인서비스업(Personal services)=숙박·음식업+오락·문화사업+가사서비스업+기타개인서비스업
- 4) 사회서비스업(Social services)=공공행정서비스업+보건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기타사회서비스업

자료: 중앙고용정보원, 『청년패널조사』, 2004. 원자료.

스업 종사자들의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각각 5.1%와 10.3%로 다른 산업에 비해 저임금근로자가 낮게 분포되어 있는 산업으로 구분된다.

산업별로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을 전체 청년취업자의 비중으로 나누어준 지수를 비교해 봄으로써 산업별 저임금근로자의 상대적 집중도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분석결과, 청년취업자들 중에서 저임금근로 현상이 두드러지는 산업은 사회서비스업으로 그 지수가 1.25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다음으로 저임금근로자가 집중된 산업으로는 유통서비스업(1.09), 건설업(0.93) 등의 순이다. 반면 제조업(0.84)과 생산자서비스(0.88) 산업에 종사하는 청년취업자의 저임금근로 현상이 다른 산업에 비해 다소 약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III. 청년층 저임금근로 지속성에 대한 탐색

여기에서는 「청년패널조사」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청년취업자의 저임금근로 현상이 과연 지속적으로 나타나는지를 탐색해 보고, 저임금근로를 지속하는 청년층의 전반적인 특성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표 5>는 2002년에서 2004년까지의 저임금근로 진입과 탈출에 대한 이행확률을 보여주고 있다. 2002년에서 2003년까지 2년간 저임금근로를 지속하고 있는 청년취업자는 6.0%에 해당하며, 저임금근로에서 비저임금근로로 탈출한 청년층은 4.0%, 저임금근로로 진입한 청년층은 7.3%에 해당한다. 이 시기에 저임금근로로부터 탈출할 확률은 40.4%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임금근로로 진입할 확률은 8.1%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3년부터 2004년을 살펴보면, 이 시기에 전체 표본의 4.5%는 저임금근로를 지속하고 있으며, 저임금근로에서 탈출하는 청년취업자는 8.8%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3년 저임금근로를 경험하지 않았던 청년취업자가 2004년에 저임금근로를 경험하는 경우는 전체 표본의 6.6%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같은 시기 청년취업자의 저임금근로 탈출확률은 34.1%로 나타나고 있으며, 진입확률은 7.6%로 2003년에 비해 다소 낮다.

청년층의 저임금근로 지속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각 연도별로 저임금근로자를 구분한 다음 총 3년간의 자료에서 나타나는 임금지위별로 집단을 세분화했다. 2002년에서 2004년까지 취업상태를 유지한 청년취업자 중에서 2년 이상 저임금근로를 경험한 청년층을 지속-저임금군(A)으로 구분하고 이들 집단을 저임금근로의 지속성이 엇보이는 계층으로 분류했다. 다음으로, 3년 중 1년 정도의 일시적인 저임금근로를 경험한 집단을 일시-저임금군(B)으로, 3년간 모두 저임금근로를 경험하지 않은 집단을 지속-비저임금군(C)으로

범주를 나누어 각 집단별 분포와 특성을 살펴보았다. <표 5>의 하단부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최소 1회 이상 저임금근로를 경험하는 청년취업자는 243명으로, 전체 표본의 23.1%가 일시적 혹은 지속적 저임금근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표본의 10.6%는 2회 이상의 저임금근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데, 이는 청년층의 저임금근로 현상이 상당부분 지속화되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결과라 하겠다.

<표 5> 청년취업자의 저임금근로 탈출 및 진입의 이행확률

(단위: 명, %)

	2002 ⇒ 2003	2003 ⇒ 2004
전 체	1,038(100)	1,038(100)
저임금근로 지속	62(6.0)	47(4.5)
저임금근로 탈출	42(4.0)	91(8.8)
저임금근로 진입	76(7.3)	68(6.6)
비저임금근로 지속	858(82.7)	832(80.2)
저임금근로 탈출확률	40.4	34.1
저임금근로 진입확률	8.1	7.6
지속-저임금근로(A)	110(10.6)	
일시-저임금근로집단(B)	133(12.8)	
지속-비저임금근로집단(C)	795(76.6)	

자료: 중앙고용정보원, 『청년패널조사』, 2002, 2003, 2004. 원자료.

<표 6>은 저임금근로와 관련된 속성별로 직장만족도, 교육수준 및 다양한 노동시장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직무만족도를 살펴보면 지속-저임금군의 직장만족도는 27.68점으로 지속-비저임금군에 비해 1.62점, 일시-저임금군에 비해서는 1.01점 정도 낮은 만족도를 보여주어 전반적으로 저임금근로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청년층의 직장만족도가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각 집단별로 임금만족도를 살펴보면 지속-저임금군의 만족도는 1.64점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임금과 관련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었다. 또한 주평균 근로시간의 경우 지속-저임금군의 평균 근무시간은 48.9시간으로 역시 다른 집단에 비해 근무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다른 집단에 비해서 지속-저임금군의 평균 근로시간이 짧다고는 하지만 법정근로시간을 8시간 정도 상회하는 것으로서, 이는 범주에 속하는 청년 취업자들이 열악한 근로조건과 낮은 임금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평균 근무기간을 살펴보면 지속-저임금군은 50개월로 가장 짧고, 일시-저임금군이 52개월, 지속-비저임금근로군이 58개월로 가장 길게 나타나 근무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임금지위도 다소 향상되고 있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수준별로는 고졸 이하 청년층의 경우, 지속-저임금군의 비중이 17.8%로 전문대졸 이하에서는 11.8%, 대학 이상에서는 3.3%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지속-저임금군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반면, 지속-비저임금군은 고졸 이하에서 그 비중이 64.5%에서 전문대졸 이하에서 72.2%로 증가하고 대졸 이상에서는 91.1%까지 크게 증가한다. 즉, 교육수준이 낮은 청년층의 저임금근로 지속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반대로 고학력 청년층일수록 저임금근로를 경험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표 6-1〉 청년층 지속-저임금근로자의 노동시장 특성

(단위: 명, %)

	2002-2004			
	지속-저임금군	일시-저임금군	지속-비저임금군	
직장만족도 <sup>1)</sup>	27.68	28.69	29.30	
임금만족도 <sup>2)</sup>	1.64	1.84	2.03	
평균 근로시간(시간)	48.9	54.0	51.7	
평균 근무년수(개월)	50	52	58	
교육수준	고졸 이하	62(17.8)	62(17.8)	225(64.5)
	전문대졸 이하	35(11.8)	49(16.5)	213(71.7)
	대학 이상	13(3.3)	22(5.6)	357(91.1)

주: 1) 직장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나타내주는 지표로 조사항목으로는 임금, 취업안정성, 직무내용, 근무환경, 근무시간, 발전가능성, 인간관계, 인사고과의 공정성, 복지후생 등의 9개 항목(5점 척도)으로 구성되었음.

2) 임금 및 소득에 대한 만족도로 1~5점 척도.

자료: 중앙고용정보원, 『청년패널조사』, 2002, 2003, 2004. 원자료.

고용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안정된 고용형태를 유지했던 집단과 불안정하게 고용의 변화를 보인 집단을 비교해 보면, 안정된 고용형태를 유지한 청년취업자의 지속-저임금군의 비중은 8.9%로 불안정하게 고용형태의 변화를 보인 집단(14.0%)에 비해 5.1%포인트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에 지속-비저임금군에서는 안정된 고용형태를 유지한 경우가 81.6%, 고용형태의 변화를 보인 집단은 그 비중이 66.6%로 매우 낮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청년층 취업자의 고용형태의 안정성 여부는 이들의 임금지위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근로시간의 경우, 40시간 미만에서는 지속-저임금군의 비중이 18.0%로 나타나는데 비해 40시간 이상에서는 10.1%로 저임금근로를 지속하고 있는 청년층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 또한 근무기간 역시 근무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지속-저임금군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기업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기업에서 근로하고 있는 청년층의 지속-저임금군의 비중은 11.8%, 일시-저임금군과 지속-비저임금군의 비중은 각각 14.1%와 74.0%로 나타났다. 반면 300인 이상 대규모 기업에서 근로하고 있는 청년층의 경우 지속-저임금군의 비중은 5.4%로 300인 미만 기업보다 6.4%포인트 낮은 수치를 보



여주고 있으며, 일시-저임금군 역시 300인 미만 기업보다 6.7%포인트 낮은 수치를 보여 준다. 반면 300인 이상 기업의 지속-비저임금군 비중은 87.1%로 300인 미만 기업에 비해 무려 13.1%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업의 규모가 큰 기업에 종사하는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에 종사하는 청년층에 비해 저임금근로를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6-2〉 청년층 지속-저임금근로자의 노동시장 특성

(단위: 명, %)

		2002-2004		
		지속-저임금군	일시-저임금군	지속-비저임금군
고용상태 <sup>1)</sup>	안정	62( 8.9)	66( 9.5)	566(81.6)
	불안정	48(14.0)	67(19.5)	229(66.6)
근로시간	40시간 미만	11(18.0)	9(14.8)	41(67.2)
	40시간 이상	99(10.1)	124(12.7)	754(77.2)
근무기간	3년 이하	59(12.9)	64(14.0)	333(73.0)
	5년 이하	37(10.7)	46(13.3)	263(76.0)
	10년 이하	12( 6.0)	17( 8.5)	171(85.5)
	11년 이상	2( 5.7)	6(17.1)	27(77.1)
기업규모 <sup>2)</sup>	300인 미만	99(11.8)	118(14.1)	619(74.0)
	300인 이상	11( 5.4)	15( 7.4)	176(87.1)

주: 1) 2002년부터 2004년까지의 고용상태의 질적변화를 나타내주는 지표로서 안정된 고용형태는 3년 동안 모두 정규직 고용상태를 유지한 청년층을 의미하고, 불안정한 고용형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임금근로로 전환된 경험이 있는 청년층을 의미함.

2) 기업규모는 2004년도 조사에서 나타난 청년취업자의 직장규모를 활용하였음.

자료: 중앙고용정보원, 『청년패널조사』, 2002, 2003, 2004. 원자료.

## IV. 결론

본고는 「청년패널조사」 2002년부터 2004년 자료를 활용해 청년계층의 저임금근로자 현황과 그 지속성에 대해 탐색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청년취업자 중에서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함께 여성 청년취업자의 저임금과 비정규직 및 비임금근로자의 저임금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3년간의 패널자료를 활용한 분석에서는 전체 표본의 약 10.6%는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저임금근로를, 12.8% 정도는 일시적인 저임금근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층의 저임금근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년 이상 지속·저임금근로군에 속하는 청년층은 주로 저학력 및 불안정한 고용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었다. 아울러 근무기간이 짧고 중소기업의 기업에 종사하는 청년층일수록 지속적인 저임금근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향후 청년계층에 대한 고용정책은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고 청년층 실업을 감소시키기 위한 총량적인 노동시장정책과 함께 노동시장에서 이미 진입한 청년층이 안정된 고용을 유지하고 적절한 임금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용의 질을 높이는 정책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분석결과를 통해서 저임금근로를 지속하는 청년계층은 고용의 질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낮은 인적자원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동시장에 진입한 청년계층이라고 해도 그 고용의 질이나 임금수준에 따라 매우 다양한 특성과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노동시장 정책은 정책대상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동시장에 고용의 질이나 임금수준이 열악하여 취약계층으로 평가되는 청년층에 대해서는 근로를 통한 경력 및 인적자원의 개발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 훈련정책이 요구되며, 동시에 근로를 통해 이들의 소득이 보장될 수 있는 사회정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아울러 본고에서는 청년여성의 저임금근로 현상이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나라 전체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여성근로자의 저임금현상과도 흡사하다. 과거에 비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나 노동시장 진입이 두드러지게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의 질은 크게 향상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청년여성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 계층의 노동시장 전반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파악하고 고용과 임금 등에서 나타나는 성별 격차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

#### <참고문헌>

강승복(2005), 「우리나라 저임금근로자의 현황과 특징」, 『노동리뷰』, 통권 제5호.

〈부표 1〉 산업별 청년층 저임금근로자 분포(2004년)

(단위 : 명, %)

	2004	
	전체 청년취업자	저임금근로자
전 체	1,021(100.0)	159(100.0)
농림어업	6( 0.6)	2( 1.3)
제조업	243(23.8)	32(20.1)
전기·가스 및 수도업	7( 0.7)	0( 0.0)
건설업	55( 5.4)	8( 5.0)
도소매업	107(10.5)	19(11.9)
숙박 및 음식점업	29( 2.8)	4( 2.5)
운수업	28( 2.7)	4( 2.5)
통신업	23( 2.3)	4( 2.5)
금융 및 보험업	63( 6.2)	6( 3.8)
부동산 및 임대업	21( 2.1)	6( 3.8)
사업서비스업	105(10.3)	14( 8.8)
공공행정업	76( 7.4)	8( 5.0)
교육서비스업	98( 9.6)	20(12.6)
보건, 사회복지업	66( 6.5)	19(11.9)
오락문화서비스업	19( 1.9)	3( 1.9)
개인서비스업	64( 6.3)	9( 5.7)
기타	11( 1.1)	1( 0.6)

자료 : 중앙고용정보원, 『청년패널조사』, 2004. 원자료.